

慶南地方 高麗기와 成立期の 樣相과 그 特徵

김 기 민*

〈목 차〉

- I. 머리말
- II. 고려기와 연구성과 검토
- III. 경남지방 출토 통일신라기와와 고려기와의 형식분류 및 단계설정
- IV.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
- V.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특징
- VI. 맺음말

국문요약

高麗는 한국사에 있어 古代가 종료되고, 中世로 전환된 시기로 고려 왕조는 漢和政策을 수용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11세기 초 현종대 이전까지는 지방 호족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고려기와의 성립이 이러한 사회 변동 상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간에 상당한 시간적·형태적 차이를 수반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 **고려기와**는 시대사적 개념이 아닌 기술사적 개념으로 전 단계의 통일신라와 구별되는 기술적 속성과 문양의 양식적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고려기와를 통일신라기와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장판 타날판의 사용, 어골문의 유행, 구획복합문, 그리고 일휘문 수·암막새**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경남지방**, 시간적 범위는 **고려기와 성립기**까지로 한정하여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을 밝히고, 그 기술사적 특징을 논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신라기에서 고려기로의 전환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 5개소를 선정하여 문양구성을 주축성으

* 경남문화재연구원

로 형식분류와 단계설정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성과에서 지적된 장판 타날판의 사용, 어골문의 유행, 구획복합문의 출현과정, 그리고 일휘문 수·암막새의 발생문제 등을 선검토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하여 고려기와 전개과정을 Ⅶ단계로 재구성하였다.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으로 평기와는 기존에 알려진 장판 어골문 단일문양 단계가 경남지방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10세기까지 유지되던 중판선문 타날, 상하2단 문양구성의 전통이 11세기 들어 장판 타날, 어골문과 결합되어 경남지방 최초의 고려기와의 장판타날, 상하 2단 대칭구성 어골문 기와로 발현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복합문은 문양 복합화의 과정을 통해 출현한 것이 아니라 문양구성의 변화과정 즉, 통일신라기와의 상하 2단 문양구성이 고려기와 I 단계의 상하 대칭 2단 문양구성으로 계승되고, 이것이 상중하 3단 문양구성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였다.

막새의 경우 고려기와 성립기 이전까지는 경남지방에서는 반구형자방이 출현하지 않았고, 11세기 들어 통일신라 활판계 연화문 막새의 화판과 새롭게 도입된 반구형 자방이 결합되어 전형적인 고려 막새가 출현한 것으로 보였다. 일휘문 막새는 반구형 자방 활판계 연화문 막새가 화판면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등장한 것으로 보였다.

고려기와 성립기의 편년은 정림사지, 동평현성지, 사천 선진진리성 등에서 출토된 “太平”명 어골문 기와와 동래고읍성지 수축관련기사를 근거로 하여 11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을 통해 재지계의 제작전통과 도입된 혁신적인 제작요소의 융합을 통한 신앙식의 창조과정을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기술사적 특징으로 보였다.

주제어 : 고려기와, 성립기, 문양구성, 상하 2단대칭 문양구성 어골문 평기와, 구획복합문, 반구형 자방 활판계 연화문 막새, 일휘문 막새

I. 머리말

高麗는 한국사에 있어(물론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古代가 종료되고, 中世로 전환된 시기였다. 고려는 漢和政策을 수용하여 관제, 세제, 과거제를 도입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군현제를 정착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국 초기에는 고려왕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었던 지방호족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광종~성종 연간을 거치면서 중앙집권체제가 다져지는 기틀이 마련되자¹⁾ 기존의 개국공신과 외척세력을 대체하여 신라 육두품계 유학자들이 주도적인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성종 8년 이후에는 신라 육두품계 유학자군이 퇴진하고,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흥 문벌 귀족이 정치주도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다.²⁾ 이후 신흥 문벌 귀족은 고려사회의 정치 주도세력으로 자리잡아 고려 귀족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11세기초에 즉위한 현종(1009~1031)은 태조에서 성종조까지의 중앙집권 강화정책을 기반으로 지방제도 개혁을 통한 중앙집권정책의 완성을 이룩하게 된다.³⁾

고려기와는 이러한 사회 변동 상황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 와전사상 하나의 획기를 이루게 된다. 본고에서 **고려기와**라 함은 시대사적 개념이 아닌 기술사적 개념으로 전 단계의 통일신라와 구별되는 기술적 속성과 문양의 양식적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통일신라 기와와 고려기와를 구분하는 대표적 기술적 속성으로는 평기와의 타날판이 중판에서 장판으로 교체된 것이다. 문양의 양식적 특징은 평기와의 타날 문양구성이 전시기의 단독문 위주에서 다양한 복합문과 구획문으로 변화한 것과 후기에는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집선문이 출현한 것이다. 또한, 문양형태는 통일신라기와는 선문이 대표적인데 반해 어골문이 고려시대 전기간에 걸쳐 성행하게 된다. 막새에 있어서는 전대의 의장성이 강한 연화문이나 당초문 계열의 수·암막새에서 화판이 완전히 생략된 일회문이 성행

1) 河炫綱, 1974, 『高麗 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4, 國史編纂委員會.

金杜珍, 1976,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韓國學報』10.

2) 兪炳基, 1997, 『高麗 初期 權力構造의 分析的 研究』, 『全州史學』제 5집, 全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3) 고려 초 태종 때부터 수차례에 걸친 지방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성종 때 12州牧과 10도가 제정되는 등 주현제의 골격을 갖추던 것이 현종조에 이르러 대대적인 개혁으로 5도 양계체제로 전환되면서 고려 지방제도가 완성되기에 이른다. 金甲童, 2002, 『高麗 顯宗代의 地方制度 改革』, 『韓國學報』80.

하게 되고, 후기에는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범자문 막새가 등장하고 있다.⁴⁾ 따라서, 고려 기와를 전시대인 통일신라 기와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장판 타날판의 사용, 어골문의 유행, 구획복합문, 그리고 일취문 수·암막새**로 규정할 수 있다.

본고는 고려 초기의 사회형태가 成宗 이전까지 호족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사회·문화의 통합도 아직 미숙한 단계였음에 주목하여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통일신라 말기 지방호족들이 발호한 후, 후삼국시대를 거치면서 고려 초기의 이러한 사회형태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와 역시 8~9세기대까지 통일신라 전지역에 걸쳐 매우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던 것이 9세기 후반 이후 고려 초까지는 정형화가 해체되고 지역별로 매우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기와에서 고려시대 기와의 전환은 지역간에 상당한 시간적, 형태적 차이를 수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기와 성립기에는 지역별로 연구를 진행한 후, 지역간의 양상이 동일해지는 단계부터 지역을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연구의 공간적 대상 범위를 **경남지방**⁵⁾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고려기와의 성립되는 시점**까지를 중심으로 하여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을 밝히고, 그 기술사적 특징을 논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논지의 전개는 II장에서 기존의 고려기와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경남지방에서 출토되는 통일신라기와와의 비교를 통해 고려기와의 특징을 파악하고, IV장에서는 전장의 내용을 토대로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을 평기와와 막새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V장에서는 이러한 고려기와 성립기의 기술사적 특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고려기와 연구성과 검토

고려기와 연구는 1980년대 서오선의 평기와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1990년대에 들어 고려 평기와 연구에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주요한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2,000년대 이후에는 출토지를 중심으로 보다 세밀한 속성 분석을 통해

4)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5) 여기서 경남지방은 현행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전통적인 지역 개념으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포괄한다.

시·공간적 특징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막새 연구성과는 평기외에 비해 빈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주요한 논제는 일회문의 채용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서오선은 평기외의 타날문양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시대구분을 하였고, 이 시대적 차이가 타날판 크기의 차이에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고려 평기와 특징으로는 장판 타날판의 보편화, 어골문의 유행이라는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⁶⁾

1990년대 들어서는 고려기와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최태선과 최정혜의 논문이 발표된다. 최태선은 평외제작법 중 와통의 변화와 타날판 크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평외제작법의 시간적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9세기 후반 이후에는 제작법이 정형화되면서 와통이나 타날판 크기가 조선 후기까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힌 점에서 주목된다.⁷⁾

최정혜는 고려시대 평기외를 타날문양의 문양형태와 문양구성을 분리하여, 문양구성을 중심으로 형식분류를 시도하여 4단계의 변천과정을 설정하였다. 본격적인 고려기외는 단독문양 중앙에 횡대가 부가되기 시작하는 2단계 이후로 보아 횡대의 출현을 고려기외의 주요한 특징으로 설명하였다.⁸⁾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별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출토지와 개별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된다.

여주 원향사지 출토기외를 분석한 윤용희는 평기외의 타날판, 문양, 내외측 조정방법, 측면분할법 등의 속성을 통해 4기의 발전단계를 설정하였다.⁹⁾ 윤용희의 2단계는 최정혜의 1단계와 병행하는 시기, 3단계는 최정혜의 2단계와 병행하는 시기, 4단계는 최정혜의 3단계와 병행하는 시기로 편년과 전개과정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윤용희의 1단계와 2단계는 단판과 중판의 구분문제, 단판과 장판이 병행하고 있는 문제, 기존 연구성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1단계의 편년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다.¹⁰⁾

6) 徐五善, 1985, 『韓國平瓦文樣의 時代的 變遷에 관한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7)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의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 崔晶惠, 1996, 『高麗時代 평기외의 編年研究-문양형태를 중심으로-』 『博物館研究論集』 5, 釜山直轄市立博物館.

9) 윤용희, 2001, 『남한강유역출토 고려전기 평기와 고찰- 여주 원향사지 출토기외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0) 물론 고구려 기외에 한해서는 단판에서 장판으로 직접 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심광주 2005; 백종오 2006) 통일신라의 경우 안압지에서 출토된 서기 679년에 해당하는 “儀鳳四年皆土”명 단판 횡방향 타날 기하학문 암키와 이후의 단판 타날 기외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윤용희의 분류 중 단판으로 분류된 기외 중 일부는 중판일 가능성이 있고, 일부 단판 타날 기외는 통일신라 기외가 아닌 삼국시대 기외일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병희는 안성 봉업사지 출토 명문와를 타날문양, 명문구조, 시문방법의 속성으로 분석하여 고려기와 특징을 3기로 구분하였다.¹¹⁾ 김병희의 분석은 최정혜나 윤용희의 연구성과와는 배치되는 문양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사격자문→복합문→어골문으로의 문양변화를 보이고 있어 기존의 단독문→복합문으로의 문양변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정혜가 문양구성을 중심으로 상대서열을 설정한 반면, 김병희는 명문의 분석을 주축성으로 하여 그의 따른 문양변화를 설정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¹²⁾

최영희는 강원지방에 위치한 5개소의 사찰유적을 대상으로 강원지방 고려시대 평기와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기준은 규격에 따른 계량적 속성과 문양형태와 구성에 따른 양식적 속성, 제작과정상의 흔적을 분석한 제작기술적 속성으로 하여 3단계의 전개과정을 설정하였다. I 단계(9세기 후반~10세기 후반)는 통일신라기와 의 제작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여러가지 기능적 시도가 이루어지는 시기, II 단계(11세기 전반~13세기 전반)는 규격이 정형화되고, 문양은 어골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와 구성이 나타나고, 타날판-장판, 측면분할-내→외, 내면 단부정면-각기 후 물손질 등 제작기술이 간략화되는 시기, III 단계는 규격의 등급이 간소화되고 제작기술 또한 간소화·약식화되는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¹³⁾

선문은 신라계나 백제계 기와일 것으로 보이고, 2단계에 해당하는 단판 정격자문 기와의 경우도 한성백제과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趙成允, 2002, 『慶州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敎考古學』 제2호, 威德大學校 博物館.

崔兌先, 2005, 『고려 기와 연구의 성과와 과제-평기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과학회 학술논집 1, 98쪽.

11) 김병희, 2001, 『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2) 김병희에 따르면 연호명 기와 중에는 명문을 둘러싼 방곽을 장식한 한 점 외에는 문양과 복합된 것이 전혀 없다. 반면 간지명에는 모두 문양이 복합되어 있다. 간지명 기와 중 “戊午”, “辛酉”는 사격자문 단독문이 명문의 주위를 장식하고 있으나, “丙辰”, “己巳”, “甲戌”명의 경우는 모두 복합문 사이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丙辰”명 기와는 상하 대칭상의 문양이 시문된 2단 구획 또는 3단 구획문이고, “己巳”명과 “甲戌”명 기와는 2~3가지 문양으로 구성된 복합문이 수회 반복된 다단구획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甲戌”명의 경우 문양형태로 고려 후기의 대표적 문양인 능형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출토량이 가장 다량인 점도 최후의 개축과 관련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따라서, 문양구성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하면 “辛酉”→“戊午”→“丙辰”→“己巳”→“甲戌”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기도 “辛酉”명과 “戊午”명이 고려 초~전기로 볼 수 있는 반면 “丙辰”명은 고려 중기(11~12세기), “己巳”과 “甲戌”명은 고려 중기 후반에서 고려 후기(13~14세기)정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병희, 2001, 전계문.

13) 崔英姬, 2003, 『江原地方 高麗時代 평기와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이인숙은 평기와의 제작기법의 변화를 통해 시대구분을 시도하였는데, 편년은 연호명 명문화를 절대연대의 상·하한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3시기, 고려시대 4시기, 조선 전기 2시기로 구분하였다.¹⁴⁾ 이인숙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일부 속성을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시간적 순서배열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지역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전체 기와 출토량에 비해 출토량에 미미한 연호명 기와가 편년의 상하한의 절대기준이 될 수 있는가도 의문점이 있으며, 세부적인 분석 속성 중 각진 타날면¹⁵⁾, 분할계선의 유무¹⁶⁾, 윤철흔의 유무, 와도방향¹⁷⁾ 등의 속성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후 연구성과의 공통점은 편년의 기준으로 연호명이나 간지명을 활용하고, 기존의 문양구성 변화가 형식분류나 편년의 기준으로 부적합함을 지적함으로써 제작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분류와 편년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성과에서도 제작법의 변화가 뚜렷한 시기는 9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반 즉 과도기적 단계와 고려기와의 정형화된 단계에 집중되고 있어 기존의 연구성과와 큰 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1세기 후반에서

14)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5) 각진 타날면은 기존에 背面角으로 명명되던 것이다. 배면각은 통일신라기와의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무단식 수키와에 배면각이 뚜렷한 것이 다수이다. 이인숙은 단판 타날판을 쓰는 삼국시대 기와도 각진 타날면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보고 있으나, 단판 타날판은 토기 호 등의 타날판을 직접 쓰다 삼국시대 후기 들어 개량한 것으로 토기와 같이 각각의 타날이 겹치면서 타날시 생기는 작은 뚜렷하지 않다.

16) 고신라의 원통형 와통작법 기와 중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경주 물천리유적의 단판 선문 기와에는 분할계선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이 수점 있다. 이 기와들의 경우 분할계선이 측내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와 내면 중앙 주변에서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할계선이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후반 사이에 새롭게 나타난다고 보다는 그 이전에는 와도 분할시에 분할계선을 무시하고 분할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7) 이인숙은 679~828년 사이에 와→내, 내→외, 내↔외 혼용이 혼재하고, 828~864년 사이에는 와→내측은 사라지고, 내→외와 내↔외 혼용이 혼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경주 물천리유적에서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 가능한 초기의 원통형 와통 수키와에 와→내, 내→외, 내↔외 혼용이 혼재되어 있고, 부산 동래 고읍성지에서는 통일신라 가장 마지막 단계 기와의 선문에 횡선이나 사선 등이 부가된 중판 타날 수키와에 역시 와→내, 내→외, 내↔외 혼용이 혼재하고 있어 삼국시대 말 원통형 와통작법이 성립된 이후에는 세가지 분할법이 통일신라시대 전기간에 걸쳐 공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이유는 통일신라시대 토수와의 좁은 상단 폭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慶州 競馬場 豫定敷地 C-I 地區』發掘調査 報告書.

박동백·김기민·김윤희·배보늬·공봉석, 2007, 『東萊 古邑城址』부산 망미동 공동주택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14세기까지의 고려기와와 전개과정은 현재까지는 기존 연구의 문양구성 변화가 분류 및 편년의 속성으로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통해 정리된 고려 평기와의 특징을 최태선은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¹⁸⁾

· 제작도구(1차 공정)의 특징

- ① 평기와 제작틀은 원통형 외통
- ② 타날판은 장판, 타날방향은 횡방향, 타날문양은 전대의 단순한 선문양에서 어골문이 주류로 등장.
- ③ 통일신라 계승기를 지나 본격적인 고려시대의 문양은 구성이 점차 복잡해진다. 특히 복합문과 중앙의 횡대로 문양구획을 양분하는 대칭적 구성이 보편화된다.

· 제작기법(2차 공정)의 특징

- ④ 기와의 측면분할은 내에서 외측으로 통일된다.
- ⑤ 기타 단부 내면조정은 물손질과 물솔질이 보편화되며, 내면에서 윤철 흔적이 확인된다.

최태선의 지적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나타나는 고려기와의 특징을 단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이 중 외통, 단부 내면조정, 타날방향, 측면외도방향 등은 삼국시대 기와에서 고려기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장판 타날판, 어골문의 채용, 구획복합문** 등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는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전환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¹⁹⁾, 필자는 이를 경남지방에 있어서는 급변한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이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과정을 풀 열쇠로 생각한

18) 崔兌先, 2005. 6, 『고려 기와 연구의 성과와 과제-평기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과학회 학술논집 1.

19)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윤용희, 2001, 『남한강유역출토 고려전기 평기와 고찰-여주 원향사지 출토기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병희, 2001, 『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다. 장판 타날판, 어골문의 채용, 구획복합문 등에 대해서는 III장의 형식분류 및 단계설정과 연관시켜 IV장에서 재검토한다.

III. 경남지방 출토 통일신라기와와 고려기와의 형식분류 및 단계 설정

1. 평기와 타날문양 형식분류 시안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 전반의 기와 변천과정을 파악해 본다.

분류의 기준은 문양구성을 주축성으로 하여 제작기법의 변화는 부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제작기법상의 속성은 시간적 변화가 비교적 뚜렷한 타날판 크기, 규격, 태도, 내면 하단 단부 조정, 와도분할방향 등으로 한정하였다.

평기와의 타날문양은 문양요소, 문양형태(단위문양), 문양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문양요소는 종선, 사선, 횡선, 격자, 사격자, 곡선, 원형, 타원형, 호형, 능형, 어골문 등 단위문양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이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대부분 문양요소가 조선 후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되어 단위문양을 이루게 된다.

문양형태는 문양요소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되면서 단위문양을 이룬 것이다. 종선문, 사선문, 횡선문, 격자문, 사격자문, 어골문, 호상집선문, 중호문, 능곽구획문, 방곽구획문, 타래문, 차륜문, 문살문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양구성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문양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되면서 배치된 것으로 평기와의 문양분류 시 가장 시간적 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기존의 기와 연구 성과는 타날문양 분류시 문양구성과 문양형태를 혼합하여 구성이 동일하면서도 문양형태가 다른 점에서 단계가 분리되어 설명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일신라 평기와에서 고려시대 말까지의 평기와 전개양상을 문양구성에만 주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문화구성의 변이 단계를 7단계로 상정하여 보았다. 여기에는 기존 연구성과의 획기에 해당하는 장판 어골문 단독구성을 일단 포함하였다.

단계	I	II	III	IV	V	VI	VII
모식도							

<그림 1> 통일신라~고려시대 평기와 타날문양 전개과정 시안

<표 1> 통일신라~고려시대 평기와 타날문양 전개과정 시안

단계	문양 구성	특징	세부 단계	특징	시기
I	상하 2단 대칭	중판 타날	-1	단일 문양요소 단일 문양형태	통일신라
			-2	복합 문양요소 단일 문양형태	통일신라 후기~고려 초기
II	단독	장판 타날 어골문		단일 문양형태	9세기후반~10세기 전반(기준안)
III	상하 2단 대칭	장판 타날	-1	중앙 횡선 없음 상하 동일문양형태	고려 전기, 11세기 이후
			-2	중앙 횡선 부가	
IV	상중하 3단	장판타날 3단구획 복합문	-1	중앙 횡선구획 상하 동일문양형태 대칭	고려 전기 후반~ 고려 중기 말
			-2	중앙 횡선구획 없음 상하 동일문양형태 대칭	
			-3	중앙 횡선구획 상중하 다른 문양형태	
			-4	중앙 횡선구획 없음 상중하 다른 문양형태	
			-5	중앙 횡선구획 상중하 다른 문양형태 중앙 문양3단 소구획 5단으로도 볼 수 있음	
V	다단	장판타날		문양형태 2가지 이상 3단구획 복합문을 축약하여 2회 이상 반복	고려 중기 말~ 고려 후기 초
VI	다단	장판타날 동일문양형태 반복 집선문	-1	능곽구획 집선문 방곽구획집선문	고려 후기 전반~ 고려 후기 중반
			-2	삼각집선문 →사선집선문	
VII	다단	장판타날 동일문양형태 반복, 상하에 다른 문양형태 부가 복합집선문		문양의 밀집도가 높음. 동일 문양요소 수회 겹친 문양형태, 앞의 문양형태 내부를 다시 다른 문양요소로 채운 문양형태. 사선집선문, 이중 반타원형문, 다중원문 등.	고려 후기 중반 이후

2. 유적별 타날문양 형식분류 및 단계설정

통일신라 기와에서 고려 후기 기와까지의 변천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남지방 일대의 해당 시기 기와가 출토되는 모든 유적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나, 본고는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신라기와의 표식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 2개소와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유적 3개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²⁰⁾

통일신라 기와는 언양 상북유적과 울산 방리유적을 분석대상으로 취했는데, 양 유적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폐기된 건물지 유적으로 출토되는 기와는 상층의 일부 조선 기와를 제외하고는 통일신라 기와만 출토되는 유적이다.

통일신라 기와에서 고려 기와로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유적으로는 동래 고읍성지, 사천 선진리성, 부산 용당동유적, 부산 만덕사지, 부산 금곡동 동원지, 동평성지, 거제 폐왕성, 거창 상동유적, 합천 영암사지, 산청 단속사지, 창원 봉림사지, 울산 장천사지 등 다수의 유적이 있으나, 대부분 유적이 기와를 소량 선별하여 보고하고 있어 전반적인 순서배열이 가능한 동래 고읍성지, 사천 선진리성, 부산 용당동유적 등 3개 유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언양 상북유적

언양 상북유적은 蔚山廣域市 蔚州郡 上北面 山前里 일대에 위치한 유적으로 국도 24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2002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는 총 4개 지구로 분할하여 실시되었는데, 특히 2지구는 총 둘레가 300m 이상 되는 대형 담장으로 둘러싸인 통일신라시대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출토된 기와는 암막새, 수막새, 귀면와, 적새, 착고, 암키와, 수키와 등으로 다양한데, 모두 통일신라시대 기와이다.

암막새는 4점으로 모두 무악식이며, 화문이 상하 대칭상으로 시문된 것이다.

²⁰⁾ 기와는 성지, 와요지, 건물지 등의 유적에서 다량 출토되나, 발굴조사 및 유물정리과정에서 기타 유물과는 달리 수습, 복원, 선별의 과정이 간소화된 경우가 많아 발굴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출토기와만으로는 해당유적의 기와 분석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합천 영암사지의 경우는 막새 위주로 선별되어 평기와의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고, 동평성지의 경우는 평기와의 전체 규격이나 타날관을 알 수 있는 유물이 거의 없고 보고서상에 탁본만 기재되어 있어 단면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한편 퇴적층위도 동일 폐기시점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최초 제작시점은 정해줄 수 없다. 즉 한 건물의 기와는 일정기간 마다 수습되나, 수습시 지붕 전체를 수습하지 않고 부분적인 수습이 이루어지거나, 일부 파손기와에 한해 수습하기도 하여, 건물의 함몰시 초축기와 또는 초반기에 수습된 기와가 최후에 수습된 기와와 지붕에 같이 남아 있는 예가 많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의 도출이 비교적 용이한 유적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수막새는 100점을 선별하였는데 단판 연화문, 복판연화문, 중판연화문, 보상연화문, 중판복엽 연화문 등의 문양구성이며, 자방은 모두 연자가 있는 형식으로 반구형 자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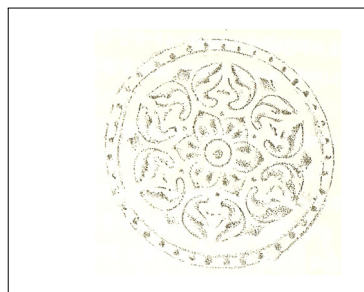
암키와는 26점을 선별하였는데, 타날판 크기가 중판인 종선문이나 사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규격은 길이 30.0~33.9cm, 너비 25.4~30.4cm, 두께 1.4~2.4cm 정도이다. 태토는 사립 및 석립이 소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며, 내면 하단 단부를 거의 정면하지 않았다.

수키와는 50점을 선별하였는데, 모두 타날판 크기가 중판인 종선문이나 사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규격은 길이 28.1~35.0cm, 너비 14.5~19.6cm, 두께 1.0~2.1cm 정도이다. 태토는 사립 및 석립이 소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며, 내면 하단 단부를 거의 정면하지 않았고, 와도 분할은 내외 혼용과 외측 절단만이 확인된다.

상복유적 건물지의 경우에 출토유물 중에 9세기의 표식적인 유물인 주름무늬병이나, 9세기에 압도적인 출토량을 보이는 화관 수 12엽 이상의 세판계 연화문 수막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서 7세기 중반 경에 초축되어 9세기 이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상복유적 수키와



<그림 3> 상복유적 수막새

평기와 타날문양은 일률적인 중판 선문으로 전혀 상이한 형식이 눈에 띄지 않는다. 즉, 9세기에 주로 보이는 중판 횡선 부가 선문, 중판 사격자문, 중판 격자문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서 역시 8세기에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막새의 경우는 반구형 자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울산 상복유적에서는 I-1단계에 해당하는 평기와만 출토되고 있어 I-1단계에 해당하는 평기와와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다.²¹⁾

2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蔚山 上北遺蹟』 國道 24號線(上北-彦陽間)發掘調査 報告書, 2004.

2) 울산 방리유적

울산 방리유적은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2001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는 총 4개 지구로 분할하여 실시되었는데, 특히 I 지구는 총 둘레 80m 이상의 담장과 배수로로 둘러싸인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4동이 조사되었다.

출토된 기와는 수막새, 귀면와, 적새, 착고, 암키와, 수키와 등으로 다양한데, 모두 통일신라시대 기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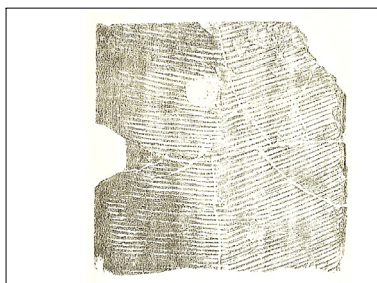
암막새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수막새는 150여점을 선별하였는데 선각 단판 연화문, 중판연화문, 중판 복엽연화문, 세판연화문 등의 문양구성이며, 자방은 모두 연자가 있는 형식으로 반구형 자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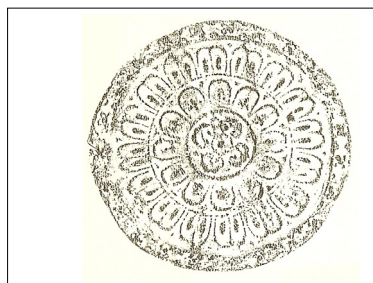
암키와는 100여점을 선별하였는데, 모두 타날판 크기가 중판인 종선문이나 사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규격은 길이 27~29cm·30~34cm, 너비 23~30.2cm, 두께 0.7~1.7cm 정도이다. 태토는 사립 및 석립이 소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며, 내면 하단 단부를 거의 정면하지 않았거나, 약 1cm 이하의 폭으로 깎아 내었다.

수키와는 60여점을 선별하였는데, 모두 타날판 크기가 중판인 종선문이나 사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규격은 길이 26~29cm·30~33cm, 너비 14~17cm, 두께 0.8~1.6cm 정도이다. 태토는 사립 및 석립이 소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며, 내면 하단 단부를 정면하지 않았거나, 약 1cm 이하의 폭으로 깎아 정면하였으며, 와도 분할의 경우 내측 절단과 내외 혼용 절단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외측 절단도 소량 확인된다.

방리유적에서는 화판 수가 16엽인 세판계 연화문 수막새도 수점 출토되고 있고, 주름무늬병편도 1점 출토되었으며, 점열문을 상형화한 인화문 등이 확인되



<그림 4> 방리유적 암키와



<그림 5> 방리유적 수막새

는 점으로 보아 9세기 전반 정도까지는 기와의 修葺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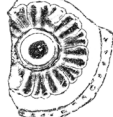

그러나 평기와는 I-1단계의 중판 선문 타날 기와만 출토되고, I-2단계의 횡선이 부가된 선문, 중판 격자·사격자문 등은 보이지 않고, 반구형 자방이 새겨진 막새 역시 보이지 않는다.²²⁾

3) 동래 고읍성지

동래 고읍성지는 부산광역시 망미동 640-1번지 일대에 위치한 유적으로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군현제를 시행하면서 초축되어 조선시대 동래읍성의 축성(1387) 이전인 14세기 중반에 폐성된 성이다. 지형상 구릉 하단 일부에 걸쳐진 평산성이며, 축조기법상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이다.

기와는 모두 500여점이 선별되었으며, 종류는 막새류, 평기와류, 특수기와, 전돌 등이다.

수막새는 17점이 출토되었는데, 자방의 형태를 기준으로 2형식으로 분류된다. I형식은 편평한 자방 내에 연자가 배치된 형식으로 화판 내에 자엽을 배치한 중판연화문(I-1형식)·복판연화문(I-2형식)·화판면이 현저히 좁아진 복판연화문(I-3형식)으로 세분된다. II형식은 반구형 자방을 가진 형식이다. II-1형식·II-2형식·II-3형식은 모두 중판 복엽 연화문이며, II-4형식은 화판면의 폭이 현저히 좁아진 복판연화문 형식이다.

I형식			
I-1	I-2	I-3	
			
26	27	916	
II형식			
II-1	II-2	II-3	II-4
			
363	573	364	365







<그림 6> 동래 고읍성지 출토 수막새 형식분류

²²⁾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蔚山 芳里遺蹟(II)』, 울산광역시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내 2차 발굴조사.

수막새 II-1형식에서 II-3형식으로 갈수록 화판면의 폭이 좁아지고, 화판이 세장해진다. 자방에 둘러진 원권이 1조에서 2조로 변하며, II-2형식에서 II-3형식이 되면 원권이 더욱 뚜렷해진다.

암막새는 20점이 출토되었는데, 화판의 형태를 기준으로 4형식으로 분류된다.

I 형식은 연당초문 형식으로 측시연화문 3개를 균등히 배치하고, 그 사이를 당초문과 蝶文으로 장식하고, 측단에는 雲氣文과 天人을 새긴 비천문으로 장식하였다. 수막새 I-1형식과 조합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II형식은 중앙에 연화문 1개를 중심으로 좌우 횡방향으로 당초문을 배치한 연당초문 형식이다. II-1형식·II-2형식·II-3형식의 세부적인 차이는 좌우에 배치한 당초의 잎갯수가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I 형식에서 II형식으로의 형식변화 방향은 화판 수가 3개에서 1개로 줄고, 화면의 폭이 점차 줄어든다. III형식은 반구형 자방을 가진 복판연화문 형식으로 화판 3개가 등간격으로 배치되었다. 수막새 II-4형식과 조합을 이루는 것이다. IV형식은 日暉文 암막새로 자방 둘레에 원권이 1조 둘러지고, 주연에는 연주문이 장식되어 있다.

I 형식	II형식		
	II-1	II-2	II-3
 28	 370	 627	 154
III형식		IV형식	
 694		 366	

<그림 7> 동래 고읍성지 출토 암막새 형식분류

수·암막새의 형식분류를 통해 수막새 2유형 7형식, 암막새 4유형 6형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막새는 I-1형식에서 II-4형식으로, 암막새는 I 형식에서 IV형식으로의 형식변화를 상징할 수 있다. 수·암막새의 편년은 수막새 I-1·I-2형식과 암막새 I 형식은 8세기 중반의 동래고읍성의 초축과 관련된 유물로 추정된다. 가장 후행하는 암막새 IV형식 일휘문 암막새를 기존의 견해와 같이

하한을 12세기 중후반으로 가정하면²³⁾ 수막새 II-4형식과 암막새 III형식은 직전 형식으로 하한 12세기 전반 또는 11세기 후반 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머지 형식은 9세기에서 11세기 중반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평기와는 전장의 형식분류 단계 중 I·III~VI단계까지 확인된다. 각 단계의 특징은 규격, 측단 와도분할 등에서도 뚜렷하게 보인다.

평기와의 규격은 I-1단계는 대체로 길이 26cm 전후, 33cm 전후의 2종이 보이고, 두께는 대체로 1.1~1.5cm가 평균적이다. 그러나 수혈유구 1호에서는 길이 42cm, 두께 3.5cm에 이르는 대형와가 출토되기도 하였다.²⁴⁾ I-2단계 평기와는 대체로 길이 33cm 전후이고, 두께는 대체로 1.8~2.1cm가 평균적이다. III~VI단계 평기와의 규격은 대체로 길이 40cm 전후이고, 두께는 대체로 2.3cm 정도가 평균적이다.

측단 와도분할을 보면 I-1단계의 암기와는 모두 내→외측인데 반해 수기와는 내→외, 내외혼용, 외→내 등이 모두 보인다. 반면 I-2단계 이후는 암·수기와 공히 내→외측으로 분할하였다.

I-1단계에는 중판 선문과 함께 중판 격자문이 보이고, I-2단계의 평기와는 황선부가 선문, 황장격자문, 황선부가 사격자문, 황집선이 상하로 부가된 문살문 등 다양한 문양형태가 나타난다.

II단계 기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III단계는 상하 대칭 어골문과 함께 상하대칭 사선문이 보인다. III-1단계와 III-2단계에 보이는 문양형태는 대동소이한 점으로 보아 거의 시기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III단계 기와는 출토된 고려기와 중에는 비교적 다량을 차지하는데, 고려 顯宗 때의 東萊郡城 수축(1021)과²⁵⁾ 관련해 절대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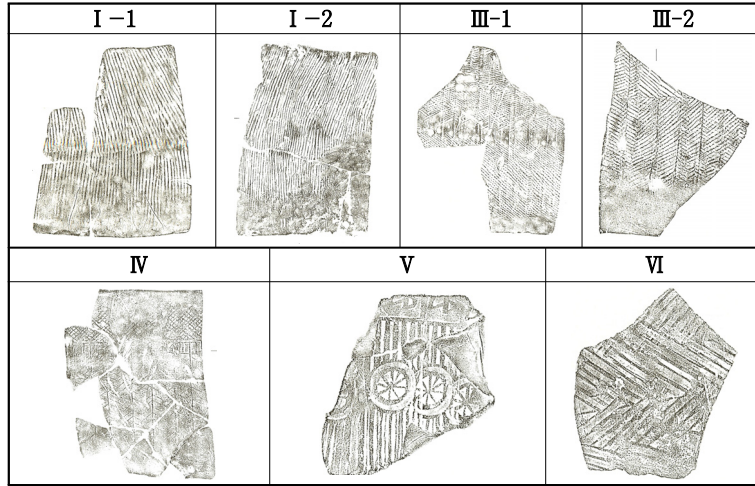
VI단계는 능곽구획집선문 등의 VI-1단계는 보이지 않고, VI-2단계에 해당하는 삼각집선문만 확인된다.

23) 朴銀卿, 1988. 5, 『高麗 瓦當文様の 編年 研究』, 『考古歴史學志』제4집, 東亞大學校 博物館, 160~161쪽.

崔晶惠, 1993, 『高麗時代의 수막새에 대한 檢討—半球形子房을 갖는 수막새를 中心으로—』, 『博物館研究論集』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8~201쪽.

24) 이 정도의 비교적 큰 기와가 출토되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안압지를 들 수 있다. 안압지 출토 평기와의 경우 38~43cm 정도의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대형와의 사용은 건물의 위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高麗史』 兵誌 卷二十六, 『顯宗 十二年 修東萊郡城···』



<그림 8> 동래 고읍성지 출토 평기와 형식분류

VI단계 이후의 평기와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 점은 폐성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된다.²⁶⁾

4) 사천 선진리성

사천 선진리성은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774-1번지 일대에 위치한 유적으로 토성 축조수법으로 보아 9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으로 지형상 독립 구릉 일부에 걸쳐진 평산성이며, 축조기법상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이다. 또한 구릉 상부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장 島津義弘이 석축으로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선진리왜성이 위치하고 있다.

기와는 모두 480여점이 선별되었으며, 막새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선별된 기와 중 왜성구간에서 대부분 출토된 조선 전기 이후의 호상집선문 기와는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평기와는 전술한 형식분류 단계 중 II·V단계를 제외한 I·III·IV·VI·VII단계까지 모두 확인된다.

I-1단계·I-2단계인 중관 선문이나 중관 횡선부가 선문, 문살문 등이 소량 출토되는 반면, I 단계의 다른 유형인 외면 전면을 물손질하고, 하단부에 사선 방향의 목리조정흔이 남아 있는 기와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I-3단계로 분류한다. I-3단계 기와는 규격, 하단 단부 내면 조정 등을 통해서 통일신라기와의임을

²⁶⁾ 김기민, 2007, 『IV. 考察- 4. 동래 고읍성 출토와전』 『東萊 古邑城址』 부산 망미동 공동주택부지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확인할 수 있다. 규격은 길이 25~35cm 정도인데, 최빈수는 32cm 정도이며, 35cm 이상의 비교적 크기가 큰 것이 9점 확인된다. 두께는 평균 1.3~1.6cm 정도이다. 하단 단부 내면은 대부분 1~2cm 폭으로 깎기하거나 전혀 정면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깎기 후 물손질하였다.

선진리성 출토기와외의 기본적인 제작법을 살펴보면, 와통은 원통형 와통, 측단 와도분할은 내→외측이며, 하단 단부 내면조정은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고식에서 조선시대로 갈수록 정면 폭이 넓어지는 일반적인 경향과 같다. 특이한 점은 통일신라 시대에는 측단 와도분할이 내→외측과 함께 내→외 혼용이 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선진리성 출토기와외에서는 내→외 혼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이다.²⁷⁾

선진리성 I-1·I-2단계 기와는 모두 6점 밖에 출토되지 않은 반면 I-3단계 기와는 80여점이 선별되고 있어 I-3단계 기와가 선진리성 초축기와외임을 알 수 있다. 선진리성 I-3단계 기와는 I-1·I-2단계 기와와 공반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I-2단계와 병행하는 형식으로 추정된다.

각 단계의 편년은 I-1·I-3단계는 통일신라시대, III단계는 고려 전기, IV단계는 고려 중기, VI단계는 고려 중기 후반에서 후기, VII단계는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로 편년 가능하다. III·IV·VI단계 기와는 출토량이 거의 비슷한 점으로 보아 고려 시대 전기간에 걸쳐 일정기간마다 대규모 수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VII단계의 집선문 기와는 토성 조사구간 내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고, 대부분 왜성에서 출토되고 있어 사천 선진리성은 VII단계가 등장하는 고려 말기에는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선진리성이 그 이전에 폐성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왜성에서 주로 사용된 호상집선문 기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를 전후한 시점에 축조된 건물 등에 즈와되었던 것을 왜성 축조시 떼어 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타래문이나 켈수문 단독문 또는 복합문의 문양형태로 확인되나 소량이라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연호명으로 “大平十五□蓮”명 암키와가 출토되었는데, 타래문양은 중앙의 장방형 방곽 내에 명문이 새겨지고 그 상단에 사격자문이 새겨진 것이다.²⁸⁾

이상과 같이 사천 선진리성 출토기와외는 통일신라기와에서 고려기와의 변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으며,²⁹⁾ 이례적인 형식인 I-3단계 기와는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다수 출토된 예가 있다.

27)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8) 박동백·안성현 외, 2008, 『泗川 船津里城』발굴조사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29) 김성진은 조선시대 호상집선문의 출현을 고려 후기부터 보이는 사선집선문에서 유래를 찾고 있다. (김성진, 2004; 이인숙 2004)

단계 종	I 단계				III 단계					
	I-1 단계		I-3 단계		III-1 단계		III-2 단계			
수키와										
암키와										
IV 단계										
	IV-1		IV-2		IV-3		IV-4		IV-5	
	V 단계		VI 단계				VII 단계			
			VI-1		VI-2					

<그림 9> 선진리성 출토 기와 형식분류 및 단계설정

5) 부산 용당동유적

부산 용당동유적은 부산시 용당동 산 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유적으로 사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5동과 담장지 및 축대, 와요지 1개소, 폐기장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기와는 모두 260여점이 선별되었으며, 수막새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고, 암막새만 1점 출토되었다.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암막새는 동래 고읍성지 I 형식 암막새와 동형으로 측시연 화문이 새겨진 것이다.

평기와는 II·V~VIII 단계를 제외한 I·III·IV·VI 단계까지 확인되며, VIII 단계 호상 집선문 기와는 단 1점만 출토되었다.



<그림 10> 용당동유적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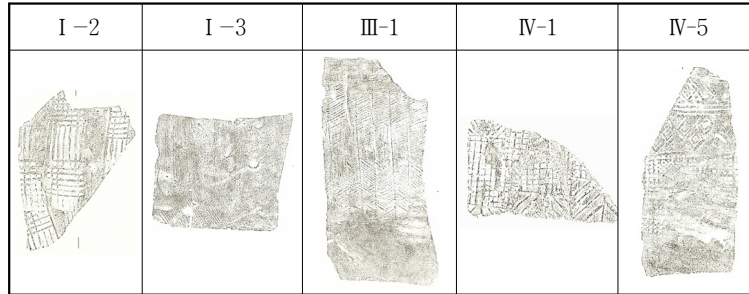
I 단계는 I-2·I-3 단계가 확인되나, I-2 단계 기와는 수점에 불과하고, 전기한 선진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I-3 단계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다. 용당동 유적 I-3 단계 기와는 규격은 길이 27~34cm 정도, 두께는 평균 1.2~1.5cm 정도이다. 하단 단부 내면은 대부분 1~2cm 폭으로 깎기하거나 전혀 정면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깎기 후 물손질하였다. 선진리성과 마찬가지로 I-3 단계 기와가 건물지 초축 당시 기와로 추정된다.³⁰⁾

III 단계는 대부분 III-1 단계 기와가 다량 출토되고, III-2 단계 기와가 소량 출토되는데, 이례적으로 전면 물손질되고, 하단에 타날된 어골문이 보이는 기와가 2점 확인되어 III-3으로 분류하였다. III-1 단계 기와는 I-3 단계와 함께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건물의 대규모 증개축시 수습된 것으로 추정된다.

IV 단계는 IV-1, IV-2, IV-3, IV-4, IV-5 단계의 기와가 모두 출토되나 출토량은 모두 소량이다. IV 단계 이후 기와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용당동 유적 건물지는 고려 중기 이후에는 폐기되었거나, 소규모의 수습만 이루어지다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³¹⁾

30) 보고자는 해당기와를 어골문이 기와의 등면에 등장하는 시점과 공반된 해무리굽 청자를 고려해 고려시대 초기로 편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중 어골문이 등면 전면에 나타나는 형식이 선진리성 III형식 단계 즉 상하대칭 문양구성을 가진 어골문이 최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기와가 전면 물손질과 하단부의 사선 목리흔으로 특징 지워지기 때문에 용당동유적 보고자가 주장하는 하단에 어골문이 일부 남은 기와는 다른 형식의 기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전면 물손질과 하단부의 사선 목리흔이 남은 기와의 경우 전형적인 고려기와 타날문양이 확인되는 기와들과 비교해 두께가 전반적으로 얇고, 규격을 알 수 있는 것들의 경우 길이가 26cm·31cm로 일반적인 통일신라시대 기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cm 전후 폭의 깎기 하단정면은 외면 전면 물손질과 하단부에 사선 목리흔이 남은 기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특징으로 보아 용당동유적의 전면물손질, 하단 사선목리조정된 기와는 통일신라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1) 박동백·박성천·김대웅·강정미, 2007, 『釜山 龍塘洞 遺蹟』慶南文化財研究院



<도 6> 용당동유적 출토 기와 형식분류 및 단계설정

IV.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

1. 고려 평기와의 성립과 전개

고려 평기와의 성립과 전개 문제를 논할 때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판 타날판의 채용, 어골문의 채용, 구획복합문의 등장에 관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세가지 문제를 먼저 검토한 후 경남지방 고려 평기와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장판 타날판의 채용

기존 연구성과에서는 원통형 와통, 장판 타날판, 횡방향 타날이라는 제작법의 정형화가 이루어진 9세기 이후의 평기와는 제작법의 차이는 없고, 타날문양에서만 시간적인 변화를 찾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원통형 와통과 횡방향 타날은 이 시점에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통일신라시대 초인 8세기에는 통일신라 전역에 정형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장판 타날판으로의 전환은 점진적인 변화과정의 종결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제작법과 기존 제작법과의 융합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삼국시대 고구려 기와에서는 단판 타날판과 함께 장판 타날판이 사용된 것이 잘 알려져 있다.³²⁾ 그러나, 고구려 기와의 장판 타날기법이 통일신라시대 신라 전역에 걸쳐 본격적으로 채용되었다는 근거는 아직 명확치 않으며³³⁾, 통일신라시대에는 중판 타날판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

³²⁾ 심광주, 2005, 6,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 기와에 대한 研究』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한국기와학회 제1회 학술대회 논문집-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³³⁾ 최태선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四天王寺의 명문 평와를 들고 있지만, 이 한 예를 통해

었다고 생각된다.³⁴⁾ 즉, 단순히 단판→중판→장판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고구려에서도 중판 타날판이 나타나야 하나 고구려의 경우에는 단판→장판으로의 변화만 인지되고 있다.³⁵⁾

이와 함께 기와의 외형과 규격문제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판 타날판을 사용한 통일신라시대 대부분의 기와는 대략 2가지 크기로, 즉 길이 25~28cm, 길이 30~34cm 등 매우 규격화된 양상이 보인다.³⁶⁾ 반면 장판 복합문이 타날된 고려시대 평기와는 길이 40cm 전후가 대부분이다.³⁷⁾ 이러한 규격의 변화는 물론 시대적 선호도 및 건물의 구조 등과 관련되어 있겠지만, 타날판 크기를 비롯한 기와 제작법의 변화와도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기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외형,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이 시기까지 장판이 아닌 중판타날판이 주로 사용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어골문의 채용

어골문은 고구려기와는서는 이미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판타날로 성형된 통일신라기와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최태선과 최정혜는 이성산성 출토기와를 그 예로 들고 있는데,³⁸⁾ 양자의 이성산성 출토 어골문 기와에 대한

본격적인 장판의 사용근거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2쪽.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³⁴⁾ 조성윤은 경주 출토 중판타날문양 평기와의를 분석하면서, 경주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는 장판 타날기와의가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의 장판 타날 평기와는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예로 충북 청주 흥덕사지 출토의 대중삼년명 기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경주에서는 장판타날기와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제작시기 하한을 9~10세기로 주장하고 있다.

趙成允, 2002. 12, 『慶州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敎考古學』 제2호, 威德大學校 博物館.

³⁵⁾ 심광주, 2005, 전계문. ; 백종오, 2006, 전계서.

³⁶⁾ 물론 20cm 미만의 초소형이나, 40cm 전후의 안압지 출토기와, 최근 화제를 불러 모은 남한산성의 60cm 이상의 초대형 기와도 출토예가 있으나, 통일신라시대의 모든 기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상기한 두가지 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³⁷⁾ 최영희는 강원지방 고려기와의 연구를 통해 고려기와의 규격이 등급화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키와 6종, 암키와 6종의 규격 등급을 추출하였는데, 이중 암·수키와 공히 36cm전후·39cm 전후·42cm 전후의 3개 등급의 출토량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필자도 본고의 기와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동래고읍성지의 경우 규격이 확인되는 기와는 대부분 39cm 전후·42cm 전후이고, 사천 선진리 성지의 경우는 37cm전후·42cm 전후의 2종이 압도적인 출토량을 보인다.(최영희 2003)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태선은 “어골문의 시원은 II Aa에 사용된 것으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瓦에서 찾을 수 있다. 정형화된 어골문이 횡방향으로 타날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어골문이 타날판 손잡이와 평행되게 시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12> 이성산성
어골문 수키와

최정혜는 “어골문이 기와의 등문양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성산성 출토품으로 보아 대략 8세기 중엽경으로 보고 있다. 전형적인 어골문은 아나나 단판타날판에 호상방향 타날이 사용된 어골문이다.”라고 한다.

양자의 설명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데, 최태선의 II형식은 원통형 와통·A는 單板·a는 弧狀打捺을 나타내는 것이며, 수키와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이 기와를 8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태선의 지적대로 원통형 와통 수키와라면 원통형 와통 암키와에만 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통쪽와통 암키와에도 조합을 이룰 수 있다. 즉, 일부 고구려 수키와의 경우 내면에 통쪽흔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나,³⁹⁾ 대부분의 수키와는 무와통작법에서 와통작법으로 제작법이 전환된 즉시 一木式의 원통형 와통작법으로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서 원통형 와통의 수키와라는 것은 시간적 위치나 공간적 위치를 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⁴⁰⁾

단판 타날판과 호상타날은 해당 제작속성 중에서 가장 빠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단판 타날 평기와의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적인 안압

38)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5쪽.
崔晶惠, 1996,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문양형태를 중심으로—』 『博物館研究論集』 5,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28쪽.
39) 백종오, 용수산성에서 출토된 수키와 2점에 뚜렷하게 모골이 찍혀 있음을 예를 들고, 이처럼 수키와에 모골흔적이 남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을 지적하고 있다.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191쪽.
40) 최근 풍납토성에서 격자문 타날판을 쓴 모골 평기와와 원통형 평기와가 동시에 확인된 예가 있다. 물론 세밀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만, 최태선은 이를 근거로 5세기 한강유역에는 모골 와통과 원통형 와통이 공존하며, 이후 백제는 모골와통을 신라는 원통형 와통을 수용한 것으로 보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최태선, 2005) 그러나, 원통형 와통과 모골와통은 와통의 형태뿐 아니라 제작법의 차이를 대표하는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즉 모골와통에는 모골와통작법의 특징이, 원통형 와통에는 원통형 와통작법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와통 자체의 형태보다 주요한 구분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에서 출토되는 암키와는 크게 세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단판 호상타날 선문 암키와, 단판 횡방향 타날 기하학문 암키와, 중판 횡방향 타날 선문 암키와인데, 단판 호상타날 선문 암키와는 고신라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중판 횡방향 타날 선문 암키와는 통일신라시대 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단판 횡방향 타날 기하학문 암키와에는 “儀鳳四年皆土”명 암키와가 있는데, “儀鳳四年”은 唐 高宗의 연호로 서기 679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와의 제작시기는 7세기 후반에 해당한다.⁴¹⁾ 이후의 단판 타날 기와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두 중판으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이성산성 출토 단판 호상타날 어골문기와의를 통일신라시대 8세기경으로 보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⁴²⁾

41) 趙成允, 2002. 12, 『慶州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敎考古學』 제2호, 威德大學校 博物館, 161~162쪽.

42) 이성산성은 축성주체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성으로 10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이성산성에서는 단판 어골문 타날기와 외에 다수의 단판 호상타날 정격자문 기와가 출토된 바 있다. 최태선은 이성산성 출토 단판 격자문 타날 기와에 대해 백제, 고구려, 신라 중 어디의 기와인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이성산성 8차 발굴의 보고자에 따르면 격자 타날기와의 C지구 저수지 3, 4층에서 보고자가 신라·통일신라시대 토기로 지칭한 회청색 경질토기, 인화문계 토기와 공반되어 다량 출토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토양상은 1~4층이 모두 동일하고 4층은 기와의 출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실제 보고서를 통해서도 명확한 고신라토기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보고자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C지구 저수지 1~4층은 시기별로 안정된 퇴적양상을 보인다기 보다는 상당기간의 유물이 혼재된 양상이 된다.

최태선은 단판 격자문 타날 기와의를 IIAs2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논문의 내용 중에 격자문은 백제 초기 평지에서 많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격자문에 관해서는 미륵사 출토기와 분석을 통해 최맹식이 격자문에서 선문으로의 전환을 논한 의견, 박용진이 삼성동 출토위를 설명하면서 격자, 사격자문이 백제 초기의 주문양이라고 해석한 예를 들고, 신라의 경우 사용예가 매우 드물며, IIAa(원통형와통 단판 호상타날)제작법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IIAb(원통형와통 단판 횡방향타날)에서는 그 사용예가 거의 없으며, 중판타날의 경우에는 타문양과 복합되어 사용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단판타날이든, 중판타날이든 경우 일대 출토기와는 선문이 압도적인 수량을 차지하고, 통일신라 후기에 망문으로 지칭되는 사격자문 기와가 상당량 출토되기는 하나 선문에 비하면 그 출토량은 미미한 정도이다. 반면, 박용진의 지적과 같이 한성백제 기와의 실체를 뚜렷이 인식시킨 석촌동 4호분이나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기와 중에는 정격자문 기와의 출토량은 압도적이다. 또한, 당시 백제토기 중 호에 주로 보이는 격자 타날문양과는 문양 형태상 매우 유사하다. 또한, 보고 내용 중에 암키와와 수키와의 와도 방향을 보면 대부분이 와도 후 2차 정면하여 파쇄면을 다듬었음을 알 수 있다. 파쇄면을 정면하는 기법은 삼국시대 각국의 기와제작 초기 기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신라·통일신라시대로 분류된 이성산성 출토 격자문 기와는 한성백제 기와일 것으로 추정되고, 어골문 기와 역시 통일신라시대로 보기는 어렵고, 백제 또는 고구려 기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3) 구획복합문의 등장

구획복합문은 중앙의 횡대를 기준으로 상하 대칭의 문양구성을 보이거나, 중앙 횡대 내에 다른 문양요소가 부가되어 상·중·하 3분 구획의 문양구성을 가지는 것이다. 구획 복합문의 전개양상은 최정혜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⁴³⁾

1단계- 장관 단일문양(어골문 등장)

2단계- 상하 동일 문양에 중앙 횡선 1~3조 부가되면서 횡선 사이 문양이 시문되어 횡대로 변화, 횡대 내 문양 배치

3단계-중앙 횡대 상하에 다른 문양 배치, 횡대 내 문양 배치된 것과 배치되지 않은 것 공존.

4단계- 횡대가 소멸하고, 상중하 다른 문양 배치, 중앙 문양은 횡대의 잔흔으로 보임. 동시에 상하 2단의 다른 문양으로 구획된 복합문 등장.

횡선이 부가되고 횡대가 등장하여 구획이 분할된 이후의 문양구성 변화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이를 시간적인 변화로만 파악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따름이다.⁴⁴⁾

구획복합문은 고려시대 이전에는 전혀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조선시대에도 횡선구획에 의한 구획복합문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획복합문의 등장이야

43) 崔晶惠, 1996,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문양형태를 중심으로-』 『博物館研究論集』 5,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34~135쪽.

44) 권위 인각사 미륵당 출토기와나 청주 흥덕사지 “대중3년(847년)” 명문 기와, 경주 사천왕사지 수습기와, 남원 실상사 백장암 출토기와, 성주사 출토기와 등을 볼 때 횡대의 출현이 보다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있고, 이른 시기에 단일문양과 횡대 구획문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문양구성을 지나치게 시간적 속성으로 해석한데서 발생한 오류이며, 지역차이 등의 공간적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崔兌先, 2005. 6, 『고려 기와 연구의 성과와 과제-평기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과학회 학술논집, 104쪽.

필자는 명문와의 문양구성과 일반 문양과의 문양구성을 동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儀鳳四年”명 기와는 단판 타날판으로 타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양은 방곽을 이중으로 두어 내곽에 명문을 새기고, 내곽과 외곽 사이에는 사격자문을 채워 넣고 있다. 즉 일종의 복합문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동일 시기의 경주 일원에서 복합문은 전혀 찾을 수 없고, 단독문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명문과 중 일부는 일찍부터 문양와의 별도의 독자적인 방곽형 문양구성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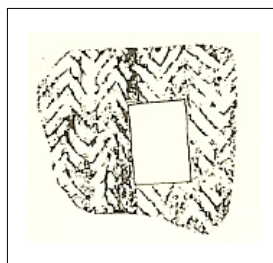
말로 고려기와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대부분의 고려기와 연구자들이 9~10세기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이 계승되는 시기로 지적하고 있으나, 횡대구획 복합문에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이 반영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전대의 선문계 타날에서 전혀 이질적인 어골문으로 전환되고, 여기서 횡대구획 복합문으로의 전개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장판 타날판이나 어골문은 대체로 고구려 계통에서 이미 등장한 유례를 찾을 수 있으나, 구획복합문은 고구려에서는 물론이고 통일신라시대의 문양형태 및 구성과 고려의 구획복합문 사이에는 연결고리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통일신라기에서 고려기와의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하는 바는 구획복합문의 형성과정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4) 경남지방 고려 평기와의 성립과 전개

Ⅲ장에서 제시한 형식분류와 단계설정은 장판 타날판의 채용과 어골문의 채용, 구획복합문의 등장과정을 도외시키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판 타날판의 채용을 9세기로 볼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어골문 기와는 통일신라시대 기와가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 계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Ⅲ장에서 제시한 단계설정 시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역시 Ⅱ단계 장판 어골문 단독문의 출토예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Ⅰ-2·3단계의 중판 상하 2단 구성에서 Ⅲ-1단계의 장판 상하대칭 어골문으로 직접 전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Ⅰ→Ⅲ단계로 형식변화의 순서를 상정할 때 Ⅲ단계에는 Ⅰ단계의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된다. 즉 Ⅰ단계에서 계승된 제작전통이 Ⅲ단계에



<그림 13> 연천 호로고루
고구려 어골문 기와

반영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Ⅲ단계로 이어지는 Ⅰ단계의 제작전통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와통, 단부 내면조정, 타날방향, 측면와도방향 등은 삼국시대 기와에서 고려기와의 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반면, 장판 타날판은 전 단계에 전혀 보이지 않는 속성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문양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문양요소는 Ⅰ단계는 종선, 사선, 횡선, 격자, 사격자 등이고, Ⅲ단계는 어골문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문양요소의 동일성은 찾을 수 없고, 문양형태 역시 문양요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러나, 문양구성은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중판 선문

타날 평기와는 모든 연구자들이 단일 문양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판 선문 타날 평기와의 상하 2회 타날하고, 일부의 경우 하단부를 짧게 보충해서 타날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문양 구성은 상하 2단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I 단계의 통일신라시대 중판 선문 타날 평기와의 2단 구획문으로 볼 때 III단계의 고려기와 문양이 상하 대칭의 2단 구성을 가지는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이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남지방 고려 평기와의 성립**은 10세기까지 유지되어 오던 중판 선문 타날, 상하 2단 문양구성의 전통이 11세기 전반에 들어 이미 정착단계에 들었던 중서부지방의 장판 타날과 어골문이 결합되면서 경남지방 최초의 고려기와라 할 수 있는 장판 타날, 상하 대칭 2단 구성 어골문 기와로 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고려기와라 할 수 있는 IV단계의 3단 구획 복합문 역시 III단계의 상하대칭 문양구성을 계승하여 IV-1단계에는 상하 문양이 대칭상이면서 중앙에 다른 문양이 추가되는 3단 구획복합문으로 변이되는 것이다.⁴⁵⁾

이상을 정리하면 경남지방 고려 평기와의 전개과정은 아래와 같다.

단계	통일신라	나말여초	고려 I 단계	고려 II 단계	고려 III 단계	고려 IV 단계	고려 V 단계
모식도							

<그림 14> 고려 평기와 타날문양 전개과정 모식도

45) 崔晶惠,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 - 문양형태를 중심으로 -』 『博物館研究論集』 5,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6. p145

<표 2> 경남지방 고려 평기와 전개과정

단계		문양 구성	특징	세부 단계	세부특징	시기
고려 이전 단계	통일 신라	상하 2단	중판타날		단일 문양요소 단일 문양형태	9세기 중반 이전
	나말여초	상하 2단	중판타날		복합 문양요소 단일 문양형태	9세기 후반~ 10세기 후반
고려 I 단계 -고려기와 성립기		상하 2단 대칭	장판타날 어골문	-1	중양 횡선 없음 상하동일 문양형태	고려 전기 11세기 이후
				-2	중양 횡선 부가 상하동일 문양형태	
고려 II 단계		상중하 3단	장판타날 3단 구획 복합문	-1	상하 동일 문양형태 중양 횡선 구획	고려 중기후반~ 고려 중기 말
				-2	상하 동일 문양형태 중양 횡선 구획 없음	
				-3	상중하 다른 문양형태 중양 횡선 구획	
				-4	상중하 다른 문양형태 중양 횡선 구획 없음	
				-5	상중하 다른 문양형태 중양 횡선 구획 중양 문양 3단 소구획	
고려 III 단계	다단	장판타날		3단 구획복합문 축약 2회 이상 반복 문양형태 2가지 이상	고려 중기 말~ 고려 후기 전반	
고려 IV 단계		다단	장판타날 집선문	-1	능곽구획집선문 방곽구획집선문	고려 후기 전반 ~후기 중반
				-2	삼각집선문 →사선집선문	
고려 V 단계	다단	장판타날 복합집선문			동일 문양형태의 연속 반복 및 상하 끝단에 다 른 문양형태 부가 사선집선문, 다중원문 등	고려 후기 중반 ~조선 전기 중반

상기의 전개과정에서 고려기와 1단계 즉 고려기와 성립기를 11세기 전반으로 편년하는 것은 동평현성지에서 출토된 “大平”명 어골문 기와와 사천 선진리 성에서 출토된 “大平”명 사격자문 기와 등에 근거를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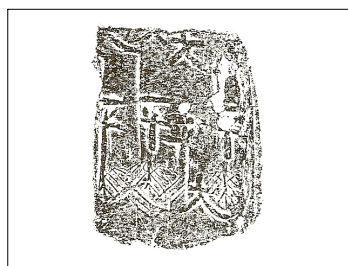
“大平”명 어골문 기와는 정립사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데, 이 “大平”명 어골문 기와는 상하대칭 어골문 중앙에 <大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라는 명문을 새긴 것으로 최정혜는 명문을 복합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횡대로 파악하고 있다.⁴⁶⁾

동평현성지에서 출토된 “大平”명 어골문 기와는 명문 아래에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명문이 문양에 중첩되어 있어 2차 타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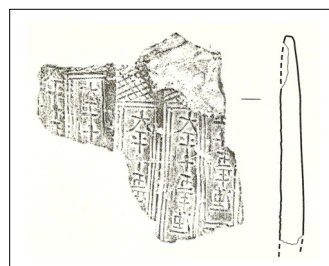
사천 선진리성 출토 “大平”명 어골문 기와는 상하대칭 사격자문 중앙에 <大平十五□連>이 새겨진 것이다.

大平은 곧 太平으로 중국 遼나라의 연호이며, 고려 현종 12~22년(1021~1030년) 사이에 쓰인 것이다. 따라서, 정립사지 “大平”명 기와는 1028년, 선진리성의 대평 15년은 靖宗 1년(1035년)이다.

한편, 명문을 횡대 문양으로 보면 이것은 본고의 고려기와 II단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명문은 횡대가 발생한 이후 기와부터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문와의 타날 문양구성에서 명문은 타날문양과는 분리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상기한 두 점의 대평명 어골문 기와는 본고의 고려기와 I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5> 동평현성지 출토 “大平”명 기와



<그림 16> 사천 선진리성 출토 “大平”명 기와

이와 함께 III장에서 분석하였던 동래고읍성의 수축기사를 살펴 보면 『顯宗十二年 修東萊郡城· · ·』⁴⁷⁾이라는 내용으로 현종 12년(1021년)은 大平 1년에 해당한다. 필자는 동래고읍성 발굴보고서를 통해 동래고읍성의 1차 수축 연대를 상기 기사와 관련지어 설명한 바 있는데,⁴⁸⁾ 이렇게 보았을 때 동래고읍성

46) 崔晶惠, 1996,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문양형태를 중심으로—』 『博物館研究論集』 5,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45쪽.

47) 《高麗史》 兵誌 卷二十六.

48) 박동백·김기민·김윤희·배보너·공봉석, 2007, 『東萊 古邑城址』 부산 망미동 공동주택부지

1차 수축시 즈음된 기와는 경남지방 고려기와 1단계인 상하대칭 어골문 기와가 되는 것이다.

현종 대에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지방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현종 초에 개정된 몇몇 군현 개편, 현종 3년에 실시된 안무사제의 내용, 현종 9년에 실시된 군현제 등이다.⁴⁹⁾ “大平”명 명문 기와나 동래고읍성 수축기사는 결국 현종 9년의 지방제도 개혁 완료 직후에 제작되고 시행된 일로써 결국 경남지방 고려기와 I 단계의 장판타날 상하대칭 구성 어골문 기와는 현종 9년(1018)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⁵⁰⁾

2. 半球形 子房의 도입과 日暉文 막새의 출현

고려시대의 막새는 초기에는 통일신라양식을 계승한 막새가 주종을 이루다 통일신라양식의 화판과 반구형 자방이 결합되어 고려 막새의 제작이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⁵¹⁾ 따라서, 반구형 자방의 유행이 곧 고려 막새의 제작 개시의 표지로 볼 수 있다.

경남지방에서 고려 막새가 발생하는 것은 동래 고읍성지 수막새 II형식, 암막새 III형식 단계로 중서부 지방으로부터 평기와의 장판 타날, 어골문과 함께 반구형 자방이 도입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경남지방 고려 평기와의 형성되는 11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日暉文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막새 문양으로 기존의 고려시대 막새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일휘문의 발생은 귀면와의 소멸기에 귀면의 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⁵²⁾, 密敎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⁵³⁾, 천태종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⁵⁴⁾

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297~300쪽.

49) 현종은 호족세력에 의하여 형성된 정치체제를 청산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북진정책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현종대의 정책기조에 따라 호족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책과 군현제가 완성되게 되었다. 현종 9년(1018) 5도양계체제(五道兩界體制), 즉 경(京)—목(牧)—도호(都護)—군(郡)—현(縣)—진(鎭)이라는 군현제의 기본 골격을 완성하고, 이러한 군현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군현의 호장(戶長) 등 향리의 정원규정, 향리의 공복(公服) 등을 제정하였다. 1022년 향리들에 대한 호칭을 개정하여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金甲童, 2002, 『高麗 顯宗代の 地方制度 改革』, 『韓國學報』80.

50) 논외의 이야기지만 상기의 논지로 보면 사천 선진리성의 고려시대 최초의 수축 역시 대평 15년(1035)명 기와가 제작된 정종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1) 崔晶惠, 1993, 『高麗時代의 수막새에 대한 檢討—半球形子房을 갖는 수막새를 中心으로—』 『博物館研究論集』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202쪽.

52) 이희돈, 1985, 『韓國鬼面紋瓦의 一考察』, 碩士學位論文, 嶺南大學校 大學院文化人類學科.

53) 朴銀卿, 1988. 5, 『高麗 瓦當文樣의 編年 研究』, 『考古歷史學志』제4집, 東亞大學校 博物館.

등이 있고, 그 출현 시기는 고려 중기 12세기 초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 막새의 출현을 통일신라의 화판과 반구형 자방의 결합으로 보았을 때 II장에서 분석한 동래고읍성지 암막새의 형식변화 방향은 화판면의 점진적인 축소라는 흐름이 있으며, 중국에는 화엽이 모두 소멸되고, 자방만 남는 일회문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변화의 흐름은 수막새 역시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필자는 동래고읍성지 막새의 문양 분석을 통하여 고려시대 막새의 형식변화 방향이 문양의 축소·여백의 확대라는 흐름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일회문 막새의 출현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통일신라 막새에서 고려 막새로 전환되는 과정은 평기와의 통일신라시대의 문양구성 전통과 장판타날, 어골문이 결합된 것과 같이 통일신라의 중판·복판·세판 등의 연화문 화판 전통과 새롭게 등장한 반구형 자방의 융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V.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 본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장판타날 어골문 단일문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다. 분석대상 유적 외에 함천 영암사지⁵⁶⁾, 부산 만덕사지⁵⁷⁾, 동평성지⁵⁸⁾, 거제 폐왕성⁵⁹⁾, 거창 상동유

160~161쪽.

⁵⁴⁾ 최정혜는 일회문을 천태종의 출현과 관계가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이 단계의 막새의 자방이 두드러지는 형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崔晶惠, 1993, 『高麗時代의 수막새에 대한 檢討—半球形子房을 갖는 수막새를 中心으로—』 『博物館研究論集』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201쪽.

⁵⁵⁾ 물론 고려시대에는 동래고읍성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암수막새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식의 막새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고려시대 암수막새 연구의 문제점이 개개 유적 내에서의 형식변화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제작배경의 검토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뚜렷한 형식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개별 유적의 형식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고려시대 전체 막새의 형식변화와 편년을 확정하는데,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생각된다.

⁵⁶⁾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5, 『陝川 靈巖寺址 II』발굴조사보고서.

⁵⁷⁾ 福泉博物館, 2007, 『釜山 萬德寺址III』발굴조사보고서.

⁵⁸⁾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6, 『堂甘洞城址 I』, 釜山廣域市立博物館研究叢書 第 10冊.

⁵⁹⁾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6,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巨濟 廢王城 陝川 屯內里

적⁶⁰⁾, 산청 단속사지⁶¹⁾, 창원 봉림사지⁶²⁾, 울산 장천사지⁶³⁾, 부산 금곡동 동원지⁶⁴⁾ 등의 유적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판 선문기외만 출토되는 상복유적이거나, 방리유적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선문 기외가 출토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당시 경남지방에서는 어골문의 문양요소가 채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나말여초까지의 기외들은 모두 중판 타날되었으며, 장판 타날은 역시 고려기와 I 단계(11세기 전반) 이후에 상하대칭 구성의 어골문이 출현하는 시점부터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⁵⁾

셋째, 복합문의 경우는 기존 연구성과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변화과정이 단순히 문양 복합화의 과정이 아니라 문양구성의 변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선대의 통일신라기외에 나타나는 상하 2단 문양구성이 고려기와 I 단계의 상하 대칭 2단 문양구성으로 계승되고, 이것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상중하 3단 문양구성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상하 대칭 2단 문양구성에서 상중하 3단 문양구성으로의 변화는 고려기와 II 단계에 해당하는 상하 동일문양이 배치된 즉 상하 대칭상의 상중하 3단 문양구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집선문 계열 기외의 경우도 상중하 3단 문양구성이 다단 문양구성으로 변이되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막새는 상복유적, 방리유적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나말여초(10세기 후반)까지는 반구형 자방을 가진 막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동래고읍성 수막새 II형식과 암막새 III형식 단계가 되면서 반구형 자방이 출현하게 된다.

다섯째, 반구형 자방 출현 이후 화판의 변화과정은 점진적인 화판면의 축소로 설명할 수 있다. 화판면의 점진적인 축소는 궁극적으로 화판이 소멸되어 일회

廢寺址』.

60) 김시환·김윤희·장기경, 2003, 『居昌上洞遺蹟』慶南文化財研究院.

61)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2, 『山淸 斷俗寺址』發掘調査報告書.

62)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0, 『昌原 鳳林寺址』學術調査報告 第 10輯.

63) 韓國文化財保護財團·蔚山廣域市, 2002, 『蔚山圈 廣域上水道(大谷峯)事業 編入敷地內 1次 發掘調査 報告書』.

64) 朴成天·宋元榮, 2006, 『釜山 金谷洞 東院址』慶南文化財研究院·(주)디엔씨홀딩스.

65) 이인숙은 부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會昌七年”(847)명 기외와 청주 흥덕사지에서 출토된 “大中三年”(849)명 기외에 보이는 장판, 어골문, 복합문 등의 요소를 통해 고려 기외의 대표하는 세가지 특징의 상한을 9세기 중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중판 타날판의 하한을 847년으로 정한다든지, 847년 이후는 일률적으로 장판만이 사용된다든지에 관해서는 분명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어골문이나 복합문의 경우도 해당시대의 주류문양으로 자리잡는 것과 개시시점, 또는 순간적으로 잠시 등장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지역차가 반드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이인숙 2004)

문 암·수막새가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볼 때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상하대칭 문양구성 기와와 반구형 자방 막새의 등장은 재지계의 상하 2단 문양구성과 새로이 도입된 장판타날, 어골문의 융합을 통해 발생하였다. 고려 연화문 막새는 재지계인 활판계 화판과 새로이 도입된 반구형 자방의 융합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고려기와의 성립기의 양상은 전통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신앙식의 창조과정을 보여주는 기술사적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삼국시대의 신라 무외통작법에서 원통형 외통작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무외통작법의 여러가지 제작기법이 원통형 외통작법 기와에서도 상당기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졸고 2007에서는 가야기와의 제작전통이 신라로 복속된 이후에 신라계 기와와 융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밝혀 전통적 기술과 신기술의 융합과정이 하나의 기술사적 특징임을 밝힌 바 있다.⁶⁶⁾ 고려기와의 성립기 역시 동일한 기술사적 특징이 보이는 것은 통시적인 기와연구에 있어 주목해 보아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최영희의 강원지방 고려기와 연구를 참조해 본다면 최영희의 고려기와 1단계는 역시 고려기와라기 보다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고려기와가 양자 공히 2단계부터 등장하는 것은 본고에서 유추한 경남지방 고려기와 형성과정을 반증해 주는 것과 함께 이러한 과정이 경남지방 뿐 아니라 타 지방에서도 유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⁶⁷⁾

VI. 맺음말

지금까지 경남지방 고려기와의 성립기의 양상과 그 기술사적 특징에 대해

66) 김기민, 2001, 『新羅기와 製作法에 관한 研究』 -慶州 勿川里 出土기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南海 大局山城 出土 三國時代 기와 研究』 『慶文論叢』創刊號

67) 물론 필자는 지방 뿐 아니라 중앙 즉, 개성에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역시 고려 초의 사회변동 상황은 중앙과 지방 간에 정치, 사회, 문화 변동에 있어 상당한 시간차와 형태적 차이를 수반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만월대 등을 비롯한 개성지역의 초기 고려기와 자료가 정리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崔英姬, 2003, 『江原地方 高麗時代 평기와의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논해 보았다.

경남지방의 고려기와는 기존 연구의 1단계가 통일신라기 및 나말여초기로 분리되고, 기존 연구의 2단계인 장판 타날 어골문 단일문양 단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경남지방 고려기와의 성립기는 장판 타날 상하대칭 문양구성 어골문 기와 단계임을 알 수 있었고, 고려기와 I 단계의 발생은 통일신라에서 나말여초까지 계승되어 온 전통적인 중판타날 상하 2단 구성 평기와의 문양구성과 중서부지방으로부터 도입된 장판 타날 어골문의 새로운 제작요소가 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시기는 “大平”명 어골문기와와 동래고읍성 수축기사를 등을 근거로 11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

막새는 자방에 연자를 새긴 활판계의 통일신라시대 연화문 막새에 반구형 자방이 도입되면서,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반구형 자방 활판계 연화문 막새가 출현한 것으로 보였다. 반구형 자방 연화문 막새는 화판면의 점진적인 축소를 통해 고려시대 기와의 독특한 특징인 일회문 막새로 전개됨을 파악하였다. 또한, 반구형 자방 막새의 발생 시기는 고려 평기와 I 단계와 병행한 것으로 보였다.

고려기와 성립기의 기술사적 특징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상하 2단 문양구성과 혁신적인 장판타날 어골문의 융합으로 발생한 고려 평기와 I 단계, 반구형자방과 활판계 화판의 융합으로 발생한 고려 연화문 막새는 전통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신앙식의 창조과정이 보이는 기술사적 특징으로 보였다.

본고는 경남지방 고려기와의 형성과정이 타 지역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지 않은 점과 필연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하는 고려 왕도인 개성 지역의 고려기와 전개과정과 비교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차후 개별유적의 전개과정 분석에 매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투고일 2008년 7월 14일 | 심사완료일 2008년 8월 18일 | 게재확정일 2008년 8월 28일 ■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金甲童, 1992, 『高麗 王朝의 成立과 郡縣制의 變化』 『國史館論叢』35.
——, 2002, 『高麗 顯宗代의 地方制度 改革』 『韓國學報』80.
- 김기민, 2001, 『新羅기와 製作法에 관한 研究』-慶州 勿川里 出土기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南海 大局山城 出土 三國時代 기와 研究』 『慶文論叢』創刊號.
- 金杜珍, 1976,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 『韓國學報』10.
- 김병희, 2001, 『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성구, 1992, 『옛기와』, 대원사.
- 김성진, 2004, 『조선전기 경남지역 와요 및 평기와의 전개양상』,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朴銀卿, 1988. 5, 『高麗 瓦當文樣의 編年 研究』 『考古歷史學志』제4집, 東亞大學校 博物館.
-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 徐五善, 1985, 『韓國平瓦文樣의 時代的 變遷에 관한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심광주, 2005. 6,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 기와에 대한 研究』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와학회 제1회 학술대회 논문집-.
- 俞炳基, 1997, 『高麗 初期 權力構造의 分析的 研究』, 『全州史學』제 5집, 全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 윤용희, 2001. 10, 『남한강유역출토 고려전기 평기와 고찰- 여주 원향사지 출토 기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희돈, 1985, 『韓國鬼面紋瓦의 一考察』 碩士學位論文, 嶺南大學校 大學院文化人類學科.
- 張起仁, 1996, 『蓋瓦』(韓國建築史大系VI), 보성각.
- 趙成允, 2002, 『慶州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敎考古學』제2호, 威德大學校 博物館.

- 崔晶惠, 1993, 『高麗時代의 수막새에 대한 檢討-半球形子房을 갖는 수막새를 中心으로-』 『博物館研究論集』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 , 1996,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문양형태를 中心으로-』 『博物館研究論集』5, 釜山直轄市立博物館.
- 崔英姬, 2003, 『江原地方 高麗時代 평기와의 關係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5. 6, 『고려 기와 연구의 성과와 과제-평기와 연구를 中心으로-』 『한국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 1.
- 河炫綱, 1974, 『高麗 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4, 國史編纂委員會.

보고서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2, 『山淸 斷俗寺址』發掘調査報告書.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0, 『昌原 鳳林寺址』學術調査報告 第 10輯.
-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5, 『陝川 靈巖寺址 II』발굴조사보고서.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6, 『堂甘洞城址 I』, 釜山廣域市立博物館研究叢書 第 10冊.
- 福泉博物館, 2007, 『釜山 萬德寺址III』발굴조사보고서.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6. 9,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巨濟 廢王城, 陝川 屯內里 廢寺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蔚山 上北遺蹟』國道 24號線(上北-彦陽間)發掘調査報告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蔚山 芳里遺蹟(II)』, 울산광역시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내 2차 발굴조사.
- 韓國文化財保護財團·蔚山廣域市, 2002, 『蔚山圈 廣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內 1次 發掘調査 報告書』.
- 김시환·김윤희·장기경, 2003, 『居昌上洞遺蹟』慶南文化財研究院.
- 김기민·김윤희·배보늬, 2005, 『東萊 鳴藏洞遺蹟』발굴조사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 朴成天·宋元榮, 2006, 『釜山 金谷洞 東院址』, 慶南文化財研究院·(주)디엔씨홀딩스.
- 박동백·김기민·김윤희·배보늬·공봉석, 2007, 『東萊 古邑城址』부산 망미동

공동주택부지내 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박동백·박성천·김대웅·강정미, 2007, 『釜山 龍塘洞 遺蹟』慶南文化財研究院.
박동백·안성현 외, 2008, 『泗川 船津里城』발굴조사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Abstrac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ed Period in Koryeo Roof Tile of Gyeongnam District

Kin, Ki Min

The Koryeo Dynasty is a period transferred to the Middle age after the ancient times came to the end in the history of Korea. The Koryeo Dynasty attempted to construct a powerful centralism by accepting the policy of Hanization. However, the Koryeo Dynasty could not help groping a political stability focused on local powerful aristocrat families before the king Hyun Jong centralized the power in the early 11th century.

The study thought that the establishment of Koryeo roof tile had the same orbit as such a social change and that would have a lot of differences in time and form among each region. In the study, Koryeo roof tile meant having technical properties and pattern styles differing from the United Silla, the former stage of Koryeo Dynasty, in the concept of technical history, not in the concept of a chronology. The study could separate the Koryeo roof tile from the roof tile of the United Silla with use of large-sized paddle-beat pattern, fashion of fish-bone pattern and roof-end tile with sun-halo design.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spects of the established period of the Koryeo roof tile and to examine its characteristics in the side of technical history by limiting its scope of space in Gyeongnam district and its scope of time in the established period of the Koryeo roof tile.

The study selected five remains that the study could grasp the transferring process from the roof tile of the United Silla to the Koryeo roof tile and attempted classification of form and setting-up of each stage regarding composition of patterns as the main property to grasp aspects of the established period of the Koryeo roof tile in Gyeongnam district. In addition, the study pre-examined use of large-sized paddle-beat

pattern, fashion of fish-bone design, the appearing process of section mix-up pattern and the outbreak of roof-end tile with sun-halo design appointed in the existing research performance. On the basis of the above, the study reconstructed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Koryeo roof tile in the stage VII.

As an aspect of the established period of the Koryeo roof tile in Gyeongnam district, in the event of the plain roof tile, the single pattern stage of fish-bone design in the existing well-known large-sized pattern didn't appear in Gyeongnam district. The tradition of middle-sized line-beat pattern and a double-pattern composition in top and bottom having kept until the 10th century was revealed to large-sized paddle-beat pattern, the first Koryeo roof tile in Gyeongnam district, and the fish-bone roof tile of a double symmetry in top and bottom while large-sized paddle-beat pattern was combined with fish-bone design in the 11th century. Also, in the event of mix-up design, a double-pattern composition in top and bottom of the roof tile of the United Silla was succeeded to a double-pattern composition in symmetry of top and bottom, the 1st stage of the Koryeo roof tile, and transferred to a triple-pattern composition in top, middle and bottom, not appearing through pattern-mixed process.

In the event of roof-end tile, semi-rectangle ovary pattern was not appeared in Gyeongnam district before the established period of the Koryeo roof tile. The typical Koryeo roof-end tile was appeared while the flower-pattern tile of printed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in the United Silla was combined with newly introduced semi-rectangle ovary pattern in the 11th century. Roof-end tile with sun-halo design was appeared while the flower-pattern tile side of semi-rectangle ovary-printed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was gradually reduced.

The dating of the established period of the Koryeo roof tile was set up to be the first half of the 11th century on the basis of fish-bone design with inscription 'Daepyeong' excavated in Jeongrimsaji, Dongpyeonghyeonseongji and Sacheon SeonjinJinriseong and a Dongraegoeupseongji construction related article.

Through the above, the study regarded the creative process of a new pattern through fusion between the tradition of local manufacture and the introduced innovative manufacturing elements a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 of the established period of the Koryeo roof tile in Gyeongnam district.

Key words : Koryeo roof tile, the established period, composition of pattern, double-pattern composition of symmetry in top and bottom, plain roof tile of fish-bone design, section mix-up design, semi-rectangle ovary-printed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roof-end tile with sun-halo design